

# <동화구연의 실제>



# 1. 등장인물의 구연방법

## 1) 사람인 경우 구연방법

등장인물	목소리 연출	모습
나쁜 왕비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배에 저장한 숨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소리를 낸다. 이 때 입은 최대한 크게 벌리고 눈은 치켜뜨는 표정을 연출한다.	“아무리 봐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아....”
자상한 아빠	굵고 낮은 배에서 나는 소리로 웃는 얼굴표정을 연출한다.	“태수야! 아바랑 함께 공원에 갈까?”
수다쟁이 아줌마	비음으로 입을 모아 빠른 속도로 발성을 하되 간사스러운 표정을 연출한다.	“호...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화가 난 오빠	입을 내밀고 불통거리며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콧구멍에 힘을 주며 발성한다.	“누구야, 누가 내 도시락을 몰래 먹은 거야? 나와, 나와 봐!”
상냥한 언니	입을 양쪽으로 살짝 벌려 입 끝을 올라가게 한 후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음 짓는 표정을 연출한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기	입술과 혀에 힘을 주고 목을 조여 내는 소리로 부드럽고 귀여운 표정을 연출한다.	“엄마, 사탕 주세요.”

## 2) 동물인 경우 구연방법

등장인물	목소리 연출	모습
호랑이 아저씨	굵고 낮은 배에서 나는 소리로 턱을 목쪽으로 당겨 주면서 발성한다.	“어흥 딱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마 아주머니	배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비음을 살려서 발성을 한다. 입 모양은 최대한 크게 벌려 준다.	“나는 목욕하는 게 제일 좋아”
코끼리 형	입을 내밀고 목에서부터 발성을 한다.	“애들아 미안해. 내 똥이야.”
생쥐 언니	입 모양은 크게 하되 옆으로 길게 만들어 발성을 한다.	“고양이님, 살려주세요.”
병아리 아기	입모양은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고 입안에 소리를 모았다가 발성을 한다.	“삐약삐약, 우리 엄마 보셨나요?”
토끼 언니	아기 소리에서 높고 가느다란 소리를 깜직한 표정으로 연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순이에요.”
원숭이 오빠	토끼와 같은 방법으로 발성하되 목을 조금 더 조여주는 느낌으로 발성한다.	“애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오리 언니	아래턱을 많이 움직이면서 입술에 힘을 주어 굵은 목소리로 목을 조여 저음으로 발성한다.	“꽹꽹, 모두들 소풍 준비는 잘하고 있죠?”

## 2. 동화구연 원고

### ☺ 강아지 똥

꼬부랑꼬부랑 시골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아이 심심해.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참새야. 나랑 놀자."

"어휴 냄새, 너 개똥이잖아. 더러워서 싫어."

"뭐! 내가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엉엉 울었어요.

"울지 마. 너 꽃을 피우는 거름이잖아."

민들레가 달래주자 강아지 똥은 활짝 웃었대요.

### ☺ 아롱이는 어디 갔을까

"아롱아, 아롱아."

엄마 멍멍이가 아롱이를 찾고 있어요.

"곰 아저씨, 우리 아롱이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악어 할아버지, 우리 아롱이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이번엔 뱀돌이에게 물어 봤어요.

"뱀돌아, 우리 아롱이 못 봤니?"

"아니, 못 봤는데요."

엄마 멍멍이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구연 포인트: 대화체를 표현할 때 시선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구연해 보세요.

### ☺ 아기 참새 짹짹

아기 참새 짹짹이는 엄마에게 나는 법을 배웠어요.

"짹짹아, 날개를 파닥이면서 살짝 날아보렴."

"파닥파닥, 어? 나도 날 수 있네."

한참을 날아가니까, 날개가 아팠어요.

아기 참새는 까마귀를 만났지요.

"둥지에서 좀 쉬어도 돼요?"  
"너, 까옥까옥 울 수 있니?"  
"아뇨, 난 짹짹 울어요."  
"그럼 안 돼지. 넌 친구가 아니니까."  
짹짹이는 너무 슬펐답니다.

### ☺ 개구리가 됐어요.

연못에 사는 엄마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알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태어났죠.  
"엄마, 난 왜 다리가 없어요?"  
"아가야,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면 다리가 생긴단다."  
"네, 엄마."  
올챙이는 매일매일 수영 연습을 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도 쑥~  
"엄마, 엄마, 나도 다리가 생겼어요."  
아기 개구리는 신이 나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 ☺ 목이 길어진 사자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아기 사자가 있었어요.  
"나도 기린처럼 목이 길고 얼룩말처럼 다리가 길었으면 좋겠어."  
아기 사자는 천사를 찾아갔어요.  
"천사님, 기린의 목과 얼룩말의 다리를 갖고 싶어요."  
"뽀로롱~뽕!"  
그러자, 아기 사자의 모습이 변하지 뭐예요.  
"어, 기린의 목, 얼룩말의 다리, 와 멋있다!"  
아기 사자는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으악! 괴물이다!"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지요.  
"아니야, 난 아기 사자야!"  
아기 사자는 엉엉 울었대요.

### ☺ 아기새

따뜻한 봄날, 민지는 땅을 파다가 무엇을 찾아냈어요.  
민지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달렸지요.  
맨 처음 뒹뒹 오리를 만났어요.  
"손에 있는 게 뭐니? 나 줄 옥수수니?"  
"아냐!"  
이번엔 강아지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민지야, 손에 있는 게 뼈다귀니?"  
"아냐! 내 거야."  
민지는 머리를 흔들며 달려갔죠.  
달리던 민지가 마당 구석에 섰어요.  
그 곳에는 아기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기새의 날개는 가엾게도 상처가 나 있었지요.  
"자, 이거 먹어. 아기새야, 배고프지?"  
민지 손에는 쌀알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쌀알을 아기새에게 준 거예요.

### ☺ 껌 많은 토끼

토끼가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흥, 잘 만났다. 마침 배고프던 참인데."  
토끼는 얼른 껌을 냈어요."아이, 호랑이 아저씨, 우선 떡을 드시는 게 어때요?"  
"뭐, 떡이라고?"  
토끼는 불을 피우고 돌 열한 개를 불 위에 얹었어요.  
"이걸 간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구요. 제가 간장을 구해 올게요.  
떡이 열 개니까 먼저 잡수시면 안 돼요."  
토끼가 가자, 호랑이는 떡을 세어 봤어요.  
"흐흐, 고 녀석, 열한 개를 열 개라니? 한 개는 먼저 먹어야지."  
호랑이는 제일 큰 걸 꿀꺽 삼켰어요.  
"앗, 뜨거!"  
호랑이는 펄떡펄떡 뛰었대요.

### ☺ 아기 호랑이 얼렁이

아기 호랑이 얼렁이가 태어났어요.

"얼롱아, 크게 소리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어흥!"

"어응!"

"아니, 배에 힘을 주고 더 크게 해야지. 어흥!"

"어응!"

얼롱이는 아빠처럼 하려고 했지만 목이 무척 아팠어요.

"아빠, 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내일 할래요."

그러나 얼롱이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연습을 안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아주 작은 소리로만 말했지요.

"애 얼롱아, 네 말은 하나도 안 들려."

"맞아, 얼롱이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얼롱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에 온 얼롱이는 거울을 보며 외쳤어요.

"음, 배에다 힘을 주고 입을 크게 하고, 어흥!어흥!어흥!"

얼롱이는 이제 씩씩한 호랑이가 될 수 있겠지요?

### ☺ 희망을 찾고 싶어

언제나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에게 말했어요.

"애야,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된단다."

"엄마, 희망이 뭐예요?"

"음~ 희망은 네 가슴에 가지는 보물 같은 거야!"

"희망은 어떤 걸까? 희망을 찾고 싶어."

아기 토끼는 물고기에게 물어봤어요.

"물고기야, 희망이 뭔지 아니?"

"희망은 넓은 바다야. 넓은 바다로 가는 것이 내 희망이거든."

"물고기의 희망은 바다구나."

아기 토끼는 나무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봤어요.

"나무 할아버지, 희망이 뭔지 아세요?"

"희망은 하늘만큼 높이 자라는 게지. 하늘은 내 희망이거든."

"나무의 희망은 하늘이구나. 그럼 내 희망은 뭘까?"

아기 토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 ☺ 사자와 생쥐

사자가 쿵쿵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생쥐가 지나다 사자의 발을 '콵' 밟았어요.

"이 녀석! 내 잠을 깨우다니! 한입에 삼켜버릴 테다."  
"살려주세요, 사자님. 그럼 꼭 은혜를 갚을게요."  
"뭐? 너 같은 꼬마가 은혜를 갚겠다고?"  
사자는 웃으며 생쥐를 놓아 주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앗! 살려줘, 도와줘!"  
생쥐가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사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물을 끊어 드릴게요."  
생쥐는 약속대로 사자를 구해 주었대요.

### ☺ 아기구름

아기구름이 여행을 하다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 주세요."  
할머니가 간절히 빌고 있지 뭐예요.  
"그래, 내가 할머니를 도와 드려야지."  
아기구름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우리 힘을 합쳐 할머니를 도와 드리자."  
"그래, 그래."  
친구들이 모이자, 구름은 아주 뚱뚱해졌어요.  
'후두둑' 쏟아!  
구름은 물방울이 되어 땅으로 뛰어내렸어요.  
"아이구! 비가 오는구나. 고맙기도 하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작고 작은 아기구름은 온 세상을 촉촉이 적셔 주었습니다.

### ☺ 개구리는 개구리야

아기개구리는 자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난 내가 개구리인 게 정말 좋아."  
개구리는 오리에게 갔어요.  
"오리야, 넌 뭘 잘하니?"  
"난 하늘을 날 수 있어."  
"와, 멋지다! 나도 날아 봐야지!"  
개구리는 오리처럼 팔을 흔들었지만, 날 수가 없었지요.  
"난 날지 못하는 개구리야."

이번엔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야, 책 좀 빌려 줄래?"

"너 글자 읽을 줄 아니?"

"아니, 하지만 배우면 되지."

개구리는 책을 빌려 왔지만,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요.

"나는 책도 못 읽고, 날지도 못하는 못난 개구리야, 엉엉."

그러자 토끼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개구리야, 난 날지도 못하고, 너처럼 해엄도 못 쳐. 왜냐하면 난 토끼니까.

그리고 넌 개구리야. 우리가 사랑하는 초록색 개구리."

그제야 개구리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난 해엄도 잘 치고 높이뛰기도 잘하는 초록색 개구리야."

개구리는 활짝 웃으며 폴짝폴짝 뛰어올랐어요.

## ☺ 내 꿀 돌려줘

들판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어요.

꿀벌이 날아와 꿀을 쪽쪽 빨아먹었어요.

"꿀벌아, 내 꿀 먹지 마! 저리 가!"

꿀벌은 쌩 날아가 버렸어요.

화가 난 민들레는 꿀을 찾으러 갔어요.

민들레는 거미에게 물었어요.

"거미야, 꿀벌을 봤니?"

"봤지, 내가 조금 전에 잡아먹었지."

"내 꿀을 꿀벌이 먹고, 꿀벌을 네가 먹었어. 그러니까 내 꿀을 돌려줘."

그때 메추라기가 거미를 물고 날아갔어요.

민들레는 언덕에서 곰을 만났어요.

"곰아, 메추라기 못 봤니?"

"봤지. 내가 조금 전에 잡아먹었지."

"내 꿀을 꿀벌이 먹고, 꿀벌을 거미가 먹고, 거미를 메추라기가 먹고, 메추라기를 네가 먹었어. 그러니까 내 꿀을 돌려줘."

곰은 껄껄 웃더니 '꽝'하고 똥을 누었어요.

"아유, 냄새! 꿀을 달라니까 왜 똥을 누니?"

"이 똥 옆에 뿌리를 내려 봐. 꽃도 피고 꿀도 생길 거야."

민들레는 너무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다음해 봄이 되자, 민들레꽃이 다시 피어났어요.

꿀벌들도 다시 날아왔지요.  
민들레는 아주아주 행복했답니다.

### ☺ 홍당무를 주세요.

아기 토끼 토순이는 언제나 반찬 투정을 했어요.  
"엄마! 난 이제 홍당무 먹기 싫어요!"  
"홍당무는 토끼에겐 제일 좋은 음식이란다. 토순아."  
"하지만 싫어요! 멍멍이처럼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토순이는 멍멍이에게 갔어요.  
"멍멍아, 나 너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거 먹어."  
멍멍이는 토순이에게 뼈다귀를 주었어요.  
"어휴, 딱딱해. 멍멍아, 넌 어쩜 이렇게 딱딱한 걸 먹니?"  
토순이는 고양이에게 갔어요.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거 먹어, 맛있는 생선이야."  
토순이는 생선을 먹으려다 깜짝 놀랐어요.  
"어휴! 생선 냄새. 숨도 못 쉬겠어."  
토순이는 소에게 갔어요.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거 먹어, 맛있는 풀이야."  
"어휴, 씨! 너무 맛없어!"  
토순이는 꼬꼬닭에게 갔어요.  
"토순아, 너 배고픈 모양이구나. 땅에 있는 쌀을 콕콕 쪼아 먹어 봐."  
토순이가 쌀을 쪼아 먹으려는데, 코가 땅에 부딪쳤어요.  
"아야, 코 아파. 아이 배고파. 집에 가서 홍당무를 먹어야지."  
토순이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홍당무 주세요."

### ☺ 꼭! 한 번만

파란 하늘에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야 신난다! 랄랄랄라라."  
아래를 보니 늑대 아저씨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응, 맛있는 사탕 벌레란다."  
"우와, 맛있겠다!"

"네 깃털 하나만 주면 사탕 벌레를 주지."  
종달이는 얼른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저기 사탕 벌레 팔아요. 사먹어도 돼요?" "안돼."  
하지만 종달이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 맛있게 생겼던데, 한 번만 사먹어 봐야지.'  
종달이는 깃털을 하나 빼주고 사탕 벌레를 사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사탕 벌레를 사먹었어요.  
매일매일 사먹다 보니 종달이의 깃털은 점점 없어졌지요.  
"어휴, 힘들어. 숨이 차서 날 수도 없네! 하지만, 꼭! 한 번만 더 먹어야지."  
그때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흐흐!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달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깃털이 없어 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종달이 엄마가 날아와 늑대의 눈을 쫓아댔어요.  
"으~ 아이구, 눈이야!" 늑대는 두 눈을 감싸고 달아났지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종달이를 데리고 높은 나뭇가지 위로 날아갔답니다.

### ㊤ 풍퐁이와 툄툄이

숲 속에 풍퐁이 웅달쌔과 툄툄이 웅달쌔이 있었어요.  
비종종 비비종종, 종달새가 툄툄이에게 왔어요.  
"아, 숨차, 툄툄아 물 좀 먹자."  
"않돼, 내 가슴의 물을 쓰고 싶지 않아."  
종달새는 풍퐁이에게 갔어요.  
"어서 와, 고운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 자, 마셔."  
잠시 후, 사슴할머니가 왔어요.  
"툄툄아, 물 좀 마셔도 되겠니?"  
"안돼요, 내 가슴의 물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사슴할머니도 풍퐁이에게 갔어요.  
"할머니, 목마르시죠? 어서 물 드세요."  
풍퐁이는 숲 속 친구들에게 계속 물을 주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자, 툄툄이 웅달쌔에서 썩은 냄새가 폴폴 풍겨나왔어요.  
"어휴, 답답해. 종달아, 나뭇잎 치우고 내 물 좀 먹어줘."

“싫어, 썩은 물 먹으면 배탈 나.”

“아이, 이럴줄 알았으면 물을 나눠 줄 걸...”

툴툴이는 점점 시커멓게 되었고, 뽕뽕이는 언제나 맑은 물이 넘쳤대요.

## 사랑의 한약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비행기 놀이해요.”

“민수야! 할미가 아파서 비행기 놀이를 못하겠구나. 콜록 콜록.”

민수는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한약을 생각했어요.

“맞아, 할머니도 한약을 드시면 빨리 나오실 거야.

그렇지만 한약을 어떻게 만들지?”

그 때 문득 엄마가 사 주신 갈색 사탕이 생각났어요.

‘그래, 그 사탕은 한약처럼 쓴맛이 났어. 물에 녹이면 한약이 될 거야.’

민수는 사탕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지요.

그러자 사탕이 사르르 녹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색깔도 갈색이고, 음~ 냄새도 한약 냄새야.”

민수는 조심조심 한약을 들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 사탕으로 한약 만들었어요. 어서 드세요.”

“뭐? 한약? 아이구, 고맙구나 민수야.”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민수가 만들어준 한약을 먹으니까 다 나은 것 같구나.”

민수는 할머니를 꼬옥 안아드렸어요.

## 고추잠자리가 된 못난이 애벌레

어느 작은 연못에 못난이 애벌레가 살고 있어요.

"아이 참! 난 왜 이렇게 못 생겼을까? 고기들처럼 멋지게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물방개처럼 번들거리는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정말 속상해."

그래서인지 아무도 못난이 애벌레하고는 놀아주지 않았어요.

소금쟁이할머니만 간혹 묻는 말에 대답해줄 뿐이었지요.

"할머니. 우리 엄마를 본 적이 있으세요?"

"글썩다. 작년 늦가을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잠깐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날아왔다구요?"

"그랬지..그 우아한 부인이 바로 네 엄마였어. 그리곤 얼마 후 노을이 붉게 물든 서쪽으로 날아갔단다."

그 뒤부터 못난이 애벌레는 노을이 뜨는 저녁무렵이면 서쪽하늘을 쓸쓸히 쳐다보곤 했지요.

"넌 왜 그렇게 쓸쓸히 앉아있냐?"

"물방개아저씨구나. 우리 엄마에게 저도 날아가고 싶어요."

"뭐야?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냐?"

"정말이에요. 저도 이다음에 꼭 하늘을 날거예요."

"물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주제에 하늘을 날 거라고?"

그러나 못난이 애벌레는 엄마가 간 서쪽하늘을 꼭 날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못난이 애벌레는 결국 서쪽하늘을 향해 떠났어요.

그 후로 아무도 못난이 애벌레는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날, 못난이 애벌레가 다시 연못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가서 무엇을 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게야?"

"쭈쭈쭈. 넌 항상 엉뚱한 꿈을 가지고 살더니 결국 이렇게 처참히 죽는구나!"

그러나 못난이 애벌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예요! 전 안 죽어요. 전 꼭 꿈을 이루고야 말테니까요."

이튿날, 소금쟁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두 날개를 활짝 펴며 하늘로 올라가는 빨간 고추잠자리를 보았던 거예요.

"할머니! 제 모습이 어때요?"

"그래, 그래, 바로 네 어머니의 모습으로구나!"

소금쟁이 할머니는 멋진 고추잠자리를 한참이나 올려다보며 애벌레가 있던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못난이 애벌레의 빈 껍질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 따뜻한 의자

밤골 시냇가에 조그맣고 울퉁불퉁 못생긴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는 건너편에 있는 나무들을 부러워했어요.

‘휴~, 모두들 예쁜 꽃을 피웠구나! 나도 나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애, 울통아! 넌 나무가 될 수 없어. 넌 바위란 말이야!”

“누가 뭐래? 괜히 참견이야!”

울통이는 나무처럼 살 수 없는 자신이 싫었어요.

“울통이는 신경질쟁이야, 매일 짜증만 내잖아”

“그래 맞아, 울통이에게 가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

새들은 울통이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냇가 마을에 사는 종다리가 울통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여기에 잠시 앉았다 가도 되겠니?”

“앉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단, 절대 응가를 누면 안 돼요.”

“알았어, 근데 넌 왜 그렇게 화가 났니?”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아저씨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않고 있어야 하는 답답함을 알기냐 하냐고요?”

“아니!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꿈이 없니?”

“꿈이요, 저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무처럼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살고싶단 말이에요.”

종다리는 울통이가 안타까웠어요.

“울통아, 세상에 꽃 한송이 풀 한포기 작은 모래알도 모두 쓰이는 데가 있어.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렴”

종다리의 말을 듣고 울통이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해오라기 할아버지가 울통이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얘야, 넌 참 따뜻하고 편안한 의자구나!”

“네? 제가 의자라고요?”

“그래, 우리 새들은 너희같은 바위들이 없으면 날개가 무척 피곤할거야. 정말 고마워!”

이 말을 들은 울통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었어.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의자가 되어주는 것 말이야.’

그 후 울통이는 지나가는 물새친구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물총새야! 안녕! 나에게 앉아 물고기를 잡으렴.”

“백로아저씨, 오늘 다슬기 많이 잡으셨어요? 조금 쉬었다 가세요.”

울통이는 이제 외롭고 슬프지 않았어요.

‘난 행복한 울통이야, 많은 새들에게 따뜻한 의자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말 이야.’

이제 울통이는 물새 친구들이 응가를 누고 가도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비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착한 울통이를 깨끗하게 씻어 줄 테니까요.

### 3. 음성표현을 위한 손유희

<딩동박수>

딩동딩동 짹짹 딩동딩동 짹짹

현관에 누가 왔나 봐요.

( )가 나갔어요.

"누구세요?"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손으로 가리고/왼쪽으로 가니/아빠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손으로 가리고/오른쪽으로 가니/엄마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손으로 가리고/위로 가니/할머니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가리고/손으로 가리고/아래로 가니/할아버지가 있네요.

"안녕하슈?"

손으로 가리고/손으로 가리고/활짝 여니/(내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과 귀와 입과 귀~

눈과 귀와 입과 귀

눈과 귀와 입과 귀

랄라랄라 랄라라

<송아지>음에 맞추어

머리흔들어

어깨 흔들어

팔도 흔들어

배꼽은 빼고

엉덩이 흔들어

온 몸을 흔들어

잘했다 박수는 잘\* 했\* 다\*

또 잘했다 박수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스마일 박수는 (왼손 입 옆으로 해서 <스마일> 오른손<스마일>

이히히히~~~)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무엇될까? 무엇될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달팽이 한 마리..달팽이 한 마리, 집 나간 달팽이, 돌아온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멋진 달팽이...멋진 달팽이><박수 달팽이...박수 달팽이>

### 참고문헌

류혜원(2008),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최태식, 인정이 외(2006), 아동을 위한 동화구연 이론과 실제,